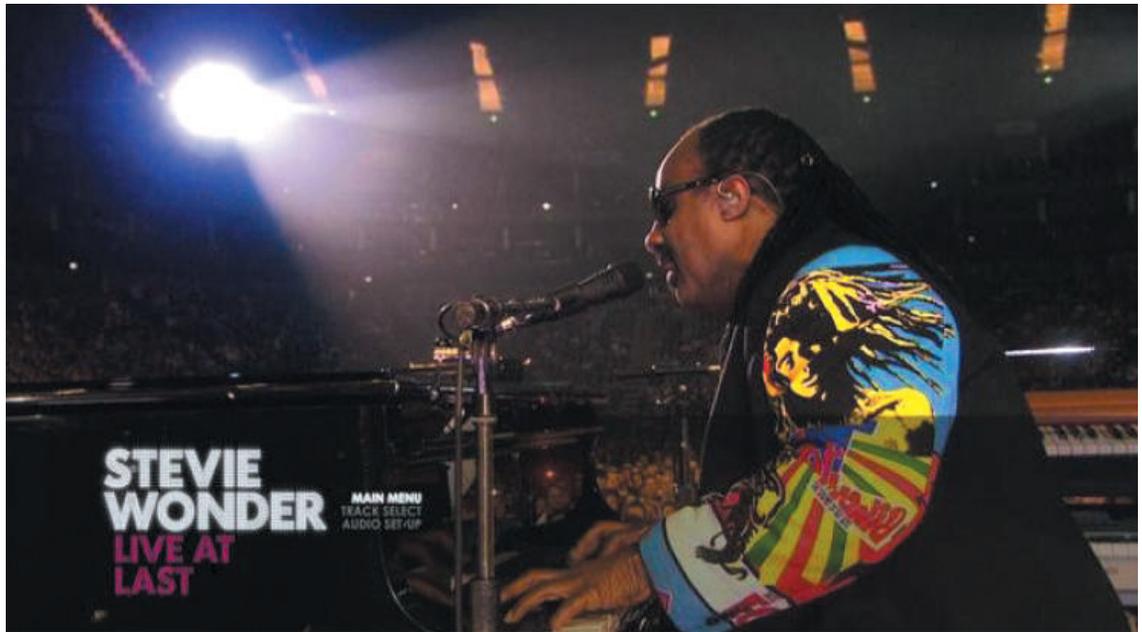




영원한 소울의 영혼 ■

STEVIE WONDER Live AT LAST 2008 DVD



THE SOUL OF THE SOUL

7월의 어느 날 불세출의 불사조일 것만 같던 한 뮤지션,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이 세상을 떠났다. 황제의 죽음 후 TV를 통해 그의 추모공연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세상에는 이처럼 모든 이의 가슴을 저미며, 단순한 일상 속에서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이처럼 장르와 상관없이 영혼의 감동을 주고 떠나는 뮤지션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이제 잭슨은 우리 곁을 떠났고, 그와 함께 지구촌 모든 이의 영혼을 뒤흔든, 아니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뮤지션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원한 소울의 영혼, 바로 스티비원더다.

THE SOUL OF THE SOUL

팝의 거장 스티비원더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표현으로 '경이'와 '새로움'이란 단어만한 것도 없다. 1960년대 초반 11살이던 어린나이로 음악계의 문을 두드린 이후 반세기 가까운 오랜 세월동안 쉬지 않고 활동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양산하고 세계 각지의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매년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수상자대열에 오름으로써 음악의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또한, 그가 만들어낸 곡들에서 재즈, 레게, 리듬앤블루스, 소울, 펑크 등의 흑인음악 주요 문법이 실현되었음을 확인하고 나면 그에 대한 놀라움을 더욱 금할 수 없다. 그 궤적이 이름처럼 경이의 순간이며, 경이의 기록이다.

시대가 가고 세대가 달라져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티비원더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 널리 불리는 이유가 이 새로움 때문이다. 그에게는 대중음악의 모든 멜로디와 형식은 이미 모두 소진하고 말았다는 냉혹한 이야기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유명 뮤지션에게 흔할법한 일이지만, 이제야 그 경이와 새로움을 담았다는 이 라이브 DVD는 스티비원더의 2008년 월드투어 중 영국런던의 'O2 ARENA'라는 경기장에서 펼쳐진 공연이다. 지난 50년 동안 이 대단한 음악계의 위인이 첫 영상물을 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스튜디오 작품만으로는 온전히 느낄 수 없는 스티비원더를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블루레이(BLUE-RAY) 버전으로도 발매된 이 DVD는 기존 돌비디지털 오디오포맷의 48kHz/16bit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96kHz/24bit 레코딩으로 폭넓은 음역대와 고음질을 즐길 수 있다.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뮤지션들을 보고 있노라면 감동은 백배가 된다. 두 명의 키보드리스트, 두 명의 퍼커셔니스트, 두 명의 기타, 베이스, 드럼, 섹소폰, 트럼펫 등 10명의 백밴드와 네 명의 코러스가 참여한 이 공연은 무려 134분 running time의 총 27곡을 들려준다.

스티비원더 음악의 절대적인 부분이 바로 악기편성이다 보니, 브라스연주자를 고정 편성한 건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스티비원더도 드러머 출신이지만 무한한 리듬과 핑킴을 항상 중요시하기 때문에 드럼과 퍼커션의 조화로운 배치는 기본이다.

모든 공연이 그렇겠지만, 음악 콘서트에는 음악감독이 있다. 이번 스티비원더 2008 라이브 DVD에는 70년대부터 스티비원더의 음악을 도와왔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베이스리스트로 참여한 네이트와츠(Nate Watts)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부단한 무대조명과 화려한 LASER, 그리고 쉴 새 없는 댄서들이 있어서 드라마틱한 공연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공연은 그저 음악 하나로 수만 명의 관객을 압도한다. 그게 바로 음악감독의 몫이다.

[음악감독을 맡은 베이스리스트 네이트 와츠(Nate Watts)]



공연 SONG LIST

- | | |
|-----------------------------------|--|
| 1. INTRO/ALL BLUES | 15. OVERJOYED |
| 2. AS IF YOU READ MY MIND | 16. LATELY |
| 3. MASTER BLASTER | 17. I'M GONNA LAUGH YOU RIGHT OUT OF MY LIFE |
| 4. DID I HEAR YOU SAY YOU LOVE ME | 18. MY CHERIE AMOUR |
| 5. ALL I DO | 19. SIGNED, SEALED, DELIVERED(I'M YOURS) |
| 6. KNOCK ME OF MY FEET | 20. SIR DUKE |
| 7. UK MEDLEY(영국 민요 메들리) | 21. I WISH |
| 8. PEOPLE MAKE THE WORLD GO ROUND | 22. ISN'T SHE LOVELY |
| 9. HIGHER GROUND | 23.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
| 10. SPAIN & INTRO TO BAND(멤버 소개) | 24.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
| 11.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 25. YOU ARE THE ONLY ONE FOR ME |
| 12. VISIONS | 26. SUPERSTITION |
| 13. LIVING FOR THE CITY | 27. AS |
| 14. PART-TIME LOVER | |

공연 음향 및 공연장 세팅

단순한 팝가수 일지라도 이젠 AR이나 MR 자체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팝가수도 라이브 공연에서는 그들의 음악에 맞게 백 밴드가 전반적인 음악을 맡으며, 심지어는 현란한 기계적인 전자음이나 샘플링 음원들도 라이브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현실이다.

스티비원더의 공연은 수십 년 동안 보여 지는 대부분의 라이브를 보면 지극히 심플하다. 드럼, 베이스, 기타 그리고 자신이 직접 건반과 하모니카, 보컬을 맡는다. 단 한 가지 스티비원더의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브라스편성이다.

클래식의 현대음악 오케스트레이션과 재즈 퀸텟(Quintet) 또는 식스텟(Sixtet)의 풍부한 브라스 편성을 접목한 부분은 가히 현대 팝음악의 큰 변화이자 역사로 작용한다. 라이브 콘서트에서 이러한 악기적인 편성과 SR 및 믹싱은 여타 밴드지향의 믹싱에 비해 꽤나 까다롭다.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등 관악기의 특성은 앰프의 마이킹이나 라인 믹싱보다 혼(Horn) 그 자체에 수음을 하기 때문에 연주자의 호흡과 미세한 떨림, 왜곡음의 조정이 만만치 않다.



[전체적인 무대 배치(전면)]

무대는 총 3stage로 구성됐다. 1층 left/right side에 브라스와 코러스가 편성되어 있고, 3층 rear side에는 percussion-drum-percussion 이렇게 세 명의 타악기 연주자가 포진해 있다. 극히 드문 편성이지만 스티브윈더 음악의 리드미컬한 latin 성향을 분석하다보면 꾸머넨 사운드(미디로 찍어내지 않은) 원시적인 리듬의 원천이 여기였구나 하는 판단이 들것이다. 그리고 2층에는 신디사이저 두 대가 양쪽 사이트에, 마지막으로 일렉기타 두 명, 일렉베이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공연에서 스티브윈더는 총 다섯 가지의 악기를 연주한다. 하모니카, 그랜드 피아노, 신디사이저(horner clavinet D6, Yamaha motif X58), talk box이다. 물론, talk box는 horner clavinet과 boss사의 이펙터를 insert한 듯 심플해 보이긴 하지만 그만의 묘한 보이스를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chorus 섹션]



[brass 섹션]



[무대 rear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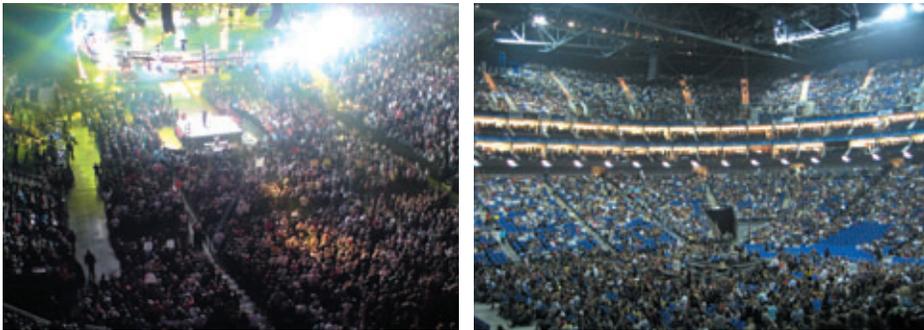


[스티브윈더 건반 세팅]



[전체적인 무대 배치(측면)]

공연이 펼쳐진 공연장을 잠시 둘러보자. 영국 런던에 있는 오투 아레나(O2 Arena)는 Beyonce, Led Zeppelin, Britney Spears, Tom Jones, Bon Jovi, Elton John, Metallica, Pet Shop Boys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공연하는 최고의 공연장이다. 특이한 점은 Entertainment Complex(연예 복합단지)라는 이름으로 유럽 최고의 통신사인 O2라는 기업의 소유물이라는 것이다. 이곳은 총 23,000명이 수용 가능하며, 음악공연, 올림픽 스포츠, 심지어는 이종격투기까지 중계하고 있는 돔구장이다. 그라운드는 아이스링크, 농구코트, 전시장, 컨퍼런스장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indoor-dome 경기장으로 리모델링시 천정의 흡음재 및 진향감쇄 좌석을 고정시킴으로써 전문 음악공연장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탈바꿈했다.



[스포츠 경기 중 O2 Arena 공연장 모습]

공연장의 거대함에 걸맞게 스티비원더의 O2 Arena 공연 영상은 공연 실행 타이틀로서는 레퍼런스라 불릴 정도로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영화와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말이다. close-up scene의 일부 camera 부분에서 보이는 약간의 noise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영상은 입체적으로 보여 질만큼 충분한 퀄리티를 보여준다.

콘서트 현장 스케치

공연은 시작됐다.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 - 트럼페터이며, 현대 재즈의 거장이자, 비밥과 쿨재즈의 창시자)의 'All Blues'를 하모니카로 연주하며, 등장하는 스티비원더의 첫 모습을 본다. 그에게는 평생의 분신이던 하모니카가 맹인이라는 장애를 딛고, 노래부를 때마다 고개를 젓혀 흔드는 것이 멋이 아니라, 흥에 겨워 그러는 것도 아니라 리듬과 그루브, 싱코(Syncopation - 음악용어로 음의 밀고 당기는 스윙감 또는 바운스) 때문이라면 믿으실지 모르겠다.

가난한 미국 미시간주 출신의 스티비원더가 영국적인 정서와 리듬을 갖게 된 것은 다분히 흑인이어서 아닌 듯 싶다. UK Medley(영국민요, 비틀즈, 롤링스톤즈 등을 메들리로 연주)를 연주하면서 분명히 자신을 사랑해주는 현지인에 대한 색다른 보답방식을 찾으려 하며 곧바로 자기만의 음악방식이 되어 미국적이지 않은 흑인 소울핑키가 된 것이다.

공연 후반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스티비원더의 친딸인 아이샤 모리스(Aisha Morris)가 등장한다.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Isn't she lovely'라는 노래의 탄생비화를 듣게 된다면 갑자기 아련해지면서 묘한 기분이 들것이다. 필자가 처음 이 스토리를 접하게 된 것은 TV의 SPOT 영상이었다. 스티비원더는 선천성 장애를 딛고 예쁜 딸을 갖게 된다. 수술을 해도 몇 분밖에는 세상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딸의 얼굴을 보기위해 개인수술을 한다. 하지만, 곧바로 그의 눈은 어둠으로 덮이게 되고, 그 짧은 순간이나마 스티비원더는 이렇게 외친다. "Isn't she lovely"

필자는 그 순간 감격과 더한 무언가를 음악이라는 수식어로 다할 수 있을까?라는 감동에 휩싸였다. 가끔 그의 외침을 마음에 되새겨 보고는 한다.(이 사연은 'http://blog.naver.com/milesjw/130053936423'에서 볼 수 있다)



[Isn't she lovely를 연주하는 스티비원더와 딸 모리스]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음악잡지 롤링스톤(Rolling Stone)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의 음악영웅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한명을 골라야 한다면, 스티비원더가 될 것이다”라고 한 해외 토크기사가 생각한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의 과잉 산소공급 사고로 맹인이 되었지만 이는 그에게 소리에 대한 강화된 자각을 주었고, 흑인 사회의 암담한 현실과 빈민가 사람들의 삶을 노래로 표현한 인권운동가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글을 마치며

필자의 짧은 음악적 지식과 음향에 대한 노하우는 다분히 음악자체에 대한 분석, 폭넓은 리스닝, 더불어 악기에 대한 센스가 절대적인 것 같다. 어린 시절 박인수씨의 ‘봄비’를 들었을 때의 느낌과 스티비원더의 ‘LATELY’를 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분명히 유사한 성격의 음악과 악기적 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악기 사운드 톤메이킹과 전통적인 한국음악의 코드스케일 진행에 그 커다란 격차가 있으며, 분명한건 엔지니어식대로의 편견이 많은 오류를 범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 많은 세대교체를 통해 음악과 음향이라는 구분이 모호해진 현실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 “들려주는 음향이 아닌 만들어 내는 음향, 만들어 내는 음향이 아닌 들려주는 음악”으로 말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필자가 우연히 알게 된 충격적 사실은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의 재기 공연이 스티비원더의 라이브가 있었던 O2 Arena였다. 어쩌면 영혼의 소리를 담아 외쳐보고자 했던 고인의 염원을 스티비원더가 미리 알았을까? 라이브 콘서트의 마지막곡인 ‘AS’를 들으며, 다시 한 번 감상에 젖어든다.

〈참고〉
<http://www.steviwonder.net>
<http://steviwonder.free.fr>
<http://www.motown.com>
<http://blog.naver.com/milesjw/130053936423>